

2015.08.11. PM1:30 <다시 봄> 34차 회의 총여심

참여:
불참:
지각:
숙기:

0. 생활나눔 & 체크
수감신청 잘 하셨나요!

1. 활동 보고 및 상황 공유

6월 9일 (화)

- [정책국][미디어홍보국] 신촌캠퍼스, 국제캠퍼스에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포스터를 부착했습니다.
- [미디어홍보국] 퀴어 문화축제 관련 혐오 표현을 모니터링했습니다.
- [생활복지국]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진행 상황 검토했습니다.
- 회장이 이한열 열사 추모제에 참여했습니다.

6월 10일 (수)

- [정책국][미디어홍보국] 학내 여성주의 소모임 아띠의 퀴어문화축제 관련 자료 훼손에 대한 입장을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6월 11일 (목)

- [미디어홍보국] 퀴어 문화 축제 지지를 위해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변경했습니다.

6월 12일 (금)

- [생활복지국] 실험협동조합에서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선생님을 섭외했습니다.
- [생활복지국] 농활 연기 공지를 받고, 농활 생리대 배부에 대해 재논의 했습니다.

6월 13일 (토)

- [미디어홍보국] 백양로에 총여학생회 1,2분기 활동보고 플레카드를 부착했습니다.

6월 14일 (일)

- 회장이 남학생 휴게실 설치에 대해 간호대학, 신과대학, 문과대학에 문의했습니다.
- 남학생 휴게실 설치 관련 내부 논의 진행했습니다.

6월 17일 (수)

- [생활복지국]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선생님과 미팅, 세부 일정을 경했습니다.
- 국제캠퍼스에 1,2분기 활동보고 플레카드를 부착했습니다.
- 국제캠퍼스에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홍보 플레카드 부착했습니다.
- 부회장이 성폭력 사건 자문했습니다.

6월 18일 (목)

회장단	혜윤, 다현
실행위원장	
재무국	진호
미디어홍보국	민정
국제캠퍼스국	민정
생활복지국	민정, 상희
정책국	불가피, 영리

드론데스
다낭성난포증후군

민정

이라대=)

6/28
권국 참여

- [정책국]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지원자들에게 OT에 대해 공지했습니다.
- 부회장이 장애인권위원회 종강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6월 19일 (금)

- [미디어홍보국]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홍보물과 지원 링크를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 [생활복지국]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장소 대여를 완료했습니다.
- 회장이 성폭력 사건 자문했습니다.
- 부회장이 성폭력 사건 자문했습니다.

6월 22일 (월)

- [재무국] 2분기 결산을 완료했습니다.

6월 23일 (화)

- [미디어홍보국] 2분기 결산 보고를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 [생활복지국]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참가자 모집 마감했습니다.
- 제28차 다시 봄 회의 진행했습니다.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OT 진행했습니다.

6월 24일 (수)

-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에 연서했습니다.
- SNS 상의 성폭력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내부 논의했습니다.

6월 26일 (금)

- 부회장이 장애인권위원회 세미나 기획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6월 30일 (화)

- 제29차 다시 봄 회의 진행했습니다.
- [생활복지국]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관련, 체육관 사건 답사 진행했습니다.
- [정책국]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장소 선정 및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7월 2일 (목)

- 학내 여성주의 소모임 / 학회 지원 프로젝트 <우리 한번 만나 봄> 미팅 진행했습니다.

7월 3일 (금)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2차 OT 진행했습니다.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1차 세미나 '여성주의 입문, 오해 및 편견 깨기'를 진행했습니다.

7월 5일 (일)

- 회장이 각 대학 여성주의자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서울 지역]

7월 6일 (월)

- 회장이 YBS와 인터뷰 했습니다.

7월 7일 (화)

- 제30차 다시 봄 회의 진행했습니다.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2차 OT 진행했습니다.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2차 '지금 여기의 여성혐오, 그리고 총여학생회'를 진행했습니다.
- SNS 상 성폭력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서울대학교 여성학협동과정 제3회 학술포럼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7월 9일 (수)

- 부회장이 장애인권위원회의 장애당론 세미나 OT와 1회차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 한국여성의 전화 토크 콘서트 홍보 요청 받고, 홍보 여부 논의했습니다.

7월 10일 (금)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3차 세미나 '영화로 보는 성역할과 여성의 주체성'을 진행했습니다.

7월 10일 (금) - 7월 11일 (토)

- 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 LT에 참석했습니다.

7월 13일 (월)

- 회장이 학생회비 TFT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7월 14일 (화)

- 다시 봄 31차 회의 진행했습니다.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4차 세미나 '신자유주의 시대의 몸'을 진행했습니다.
- 2015 여름 농민학생연대활동에 생리대 480개와 성평등 자차규약 포스터를 제공했습니다.

7월 15일 (수)

- 부회장이 장애인권위원회 장애당론 세미나에 참여해 장애와 질병을 다루는 여성주의 철학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7월 16일 (목)

- 부회장이 성폭력 사건 상담했습니다.

7월 17일 (금)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5차 세미나 '성적차기결정권과 성폭력'을 진행했습니다.

7월 18일 (토)

- 회장이 여성의전화 2015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 1학기 집행부 환송회를 진행했습니다.

7월 20일 (월)

- 회장이 졸속한 수강신청 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총장 면담을 위한 본관 검거에 참여했습니다.

7월 21일 (화)

- 다시 봄 32차 회의 진행했습니다.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6차 세미나 '경상가족은 정상인가요?'를 진행했습니다.

장인규 UCC.

7월 23일 (목)

- [생활복지국]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강사와 살림의료사협 다짐에서 미팅했습니다.
- 부회장이 장애인권위원회 장애당론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 회장이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을 말하다' 논문발표회와 집담회에 참여했습니다.

7월 24일 (금)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7차 세미나 '성소수자와 섹슈얼리티'를 진행했습니다.

7월 27일 (토)

- [정책국] 여성주의 자치도서관 페미니리 도서 목록을 최종 업데이트 했습니다. 스티커 라벨링 작업 진행 중입니다.

7월 28일 (화)

- 다시 봄 33차 회의 진행했습니다.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8차 세미나 '남안적 사랑과 연애'를 진행했습니다.

7월 29일 (수)

- [생활복지국]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1회차 진행했습니다.
- 부회장이 성폭력 사건 상담했습니다.

7월 30일 (목)

- 회장단과 집행부가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MT를 준비했습니다.
- 부회장이 성폭력 사건 상담했습니다.
- 부회장이 장애인권위원회 장애당론 세미나에 참여했습니다.

7월 31일 (금)

- [생활복지국]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2회차 진행했습니다.

7월 31일 (금) - 8월 1일 (토)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MT를 다녀왔습니다.

8월 3일 (월)

- [정책국] 학내 여성주의 소모임 / 학회 지원 프로젝트 <우리 한번 만나 봄> 2차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8월 4일 (화)

- 다시 봄 34차 회의 진행했습니다.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매체팀 1차 회의 진행했습니다.

8월 5일 (수)

- [생활복지국]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3회차 진행했습니다.

8월 6일 (목)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포럼팀 1차 회의 진행했습니다.

8월 7일 (금)

- [생활복지국]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4회차 진행했습니다.

8월 7일 (금) - 8월 8일 (토)

- 회장과 집행부가 한국여성학회 2015 여름캠프 '나는 페미니스트다'에 참여했습니다.
- 회장이 한국여성학회 2015 여름캠프 학부세션에서 발제 진행했습니다.

8월 8일 (토)

- 신입 집행부원을 위한 OT 진행했습니다.

8월 11일 (화)

- [미디어홍보국] 여성주의자기방어훈련 워크숍 활동보고를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 [미디어홍보국] 2015 총여학생회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활동보고를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 다시 봄 35차 회의 진행했습니다.
- 2015 포럼 기획단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매체팀 2차 회의 진행했습니다.

2. 중운위 안전 공유 [첨부자료1]

논의안건
1. 제52대 총학생회 제4분기 예산
2. 제52대 총학생회 집행위원회 제2분기 결산 수정 보고

조각하다 지새기.

금-러
제주도.

100%일 인건.

학생리버 TFT

3. 제52대 총학생회 특별자치단체 지원금 지급 방식 결정
4. 학생회직 개정안 검토
5. 수강신청 제도 문제 상황 공유
6. 합동운동원 버스 특별활동지원비 정산
7. 학생회관-대강당 공간구성 논의
기타안건
1. 총장 선출 제도 논의 공유

3. 여름방학 재실 시간표

하지 않기로

4. 살림살이

(1) 신촌 총여실

- 쓰레기는 나가면서 바로 버리기 / 설거지는 바로바로

(2) 국경 총여실

- 가이드북 정리 / 도어락 요청

5. 사업 및 논의 안건

국제캠퍼스국	(1) 페미니리 [첨부자료2] - 진행상황 체크 (2) 우리한번만나봄 [첨부자료3] - 다음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12일, 19일, 26일) (3)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첨부자료4] - 세미나, MT 평가서 - 매체팀 각의실 대어, 일정 정리 - 포럼팀 기획안 양식 업로드, 각의실 대어 - 센터 요청 기획안 작성 및 발송 (이번 주)
정책국	(4)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 각의실 대어, 스포츠센터 지하1층 태권도장 - 평가서 작성 - 감사료 확인증, 감사님 신분증/통장 사본 - 센터에 진행 상황 메일로 공유
생활복지국	(5) 홈페이지 (8월 중) www.gasbom2015.com - 콘텐츠 업로드 / 매달 / 검색 필요 - 활동보고/우한봉/세다페/자기방어훈련 업로드 - 우한봉 업로드 필요
미디어홍보국	

12시

027

정가서 정리.

재무국	-
-----	---

(7) 가이드북 배부대

- 배치 날짜

(8) 세연넷 고소

- 이미 신고한 거 -> 어차피 판단은 검찰에서 하니까 진정서 작성해서 경찰에 첨부해 보내게끔 해라 (피해자가 자기 피해를 입증하려 난리칠수록 형량 높아질)

- 아직 신고 안된 거 -> 증거량 고소장 진정서 써서 경찰 알고 검찰로 바로 보냄

(9) 성평등센터 홍보 기획안

- 피드백 반영해 수정해서 센터에 보내기로

등기로

정서적 고통, 피해
구구절절히

6. 기타안전

(1) 다시 봄 회의 - 방중 매주 화요일

(2) 폐미학교

(3) 이화교지 인터뷰 - 이번주 수요일 오후 4시

(4) MT - 8/28~8/29(금~토) 청평

(5) 통문으로 더협소 홍보 [첨부자료5]

(6) 여성가족부의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 성명서 연대 요청 [첨부자료6]

[첨부자료1] 수강신청 제도개편 관련 중앙운영위원회 피드백 양식

1. 과사무실과의 논의 문제	
2. 단과대 과목별 형평성 조치의 적절성	
3. 마일리지 투자 정보 : 정원 대비 희망과목 수	
4. 기타 시스템 상의 문제	
5. 그 외 논의점	노동장 월급도 마일리지제

[첨부자료2] 폐미너리 정리안

1. 현황

(1) 목록화 완료 (정책국 게시판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2) 학우들이 와서 이용해도 책의 배열이 크게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한 스티커 작업 중 (미완료)

2. 해야 할 작업

① 스티커 부착 -> ② 스티커를 고정하기 위한 투명테이프 부착

※ 유의사항

차별로 인지/인정되지 못함. 총여splain.

- (1) 어떤 스티커를 붙여야 하는지 가이드로 해당 선반의 이름 옆에 미리 붙여두었으며 스티커는 페미니리 들어가자마자 왼쪽 책꽂이의 가장 오른쪽 가장 위 칸에 있습니다.
- (2) A-1, A-2, A-3, A-4, A-5, A-6, B-1, B-2, B-3은 스티커 부착(①의 과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 (3) 기타(D-3) 분류는 스티커를 따로 부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후에 다른 영역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다는 점으로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그 외 스티커가 떨어졌거나, 책꽂이에 있지 않아 자리를 모르겠는 책은 카페 경책국 게시판에 들어가 페미니리 목록 최종을 참고하면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 임의 분배안

		비고
상회, 영리	B-4, B-5, B-6, A-1	A-1는 테이프 작업만 하면 됩니다.
건호	C-1, C-2, C-3, A-2	A-2는 테이프 작업만 하면 됩니다.
인정	C-4, C-5, C-6, A-3	A-3는 테이프 작업만 하면 됩니다.
불가피	D-1, D-2, E(NEW)	E는 테이프 작업만 하면 됩니다.
다한	A-4, A-5, A-6	테이프 작업만 하면 됩니다.
혜운	B-1, B-2, B-3	테이프 작업만 하면 됩니다.

[첨부자료3] 우리 한 번 만나봄

사업명	학내 성차별 / 성폭력 / 혐오 피해 사례집 발간을 위한 대나무숲 "그일은전-하소하지않습니다."		
담당국	정책국	협력주체	세다페 매체팀 우리한번만나봄
진행날짜	8월 -		
사업의도	학내의 "언지 차별"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사례집을 발간한다.		
진행내용	- 학내 성차별 / 강의자의 문제 발언 / 성폭력 /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의 항목을 설정, 구글독스로 피해 사례를 수집한다. 구글독스 - 제보자 이름 (선택), 제보자 연락처 (선택), 시간, 장소, 내용, 활용동의여부(+활용설명), 센터에 대리접수 원하는 지 여부 - 접수 원할 시에는 제보자 이름, 연락처, 가해자 신원을 남겨야 함 센터 접수 시 익명성 보장원다는 것 반드시 홍보할 것. - 사례 수집 시 제보자에게 매체 및 대나무숲 활용 가능성과, 신원 보호를 위해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한다. - 세부적인 동의 항목을 만들어 피해 당사자의 사례가 양적자료로만 활용되길 원하는지, 질적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가능해도 상관없는지 여부를		

성폭력은
다른 차원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카테고라이즈 :)

학내초점.

	문는다. - 통계내도 좋을 듯. 한국 성폭 올림터 예시 참고. 여권의 설문지 참고. - 피해 당사자가 사건화를 원하는 경우 총여가 센터에 대리 접수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 여부 묻기 - 사례집을 어떤 식으로든 형태화 시켜 매체에 포함시키는 것을 매체팀과 논의 - *역량에 맞추어 과정이 축소되더라도 총여가 이러한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제일 중요 / 모니터링은 반드시 공지하자. (모니터링 공지하며 가상의 사례를 설명해도 좋음.)
예산	- 콘텐츠 작성/디자인 노동력, 포스터/플라그 인쇄비
홍보방법	- 페이스북, 홈페이지, 와이섹, 포스터, 플랑
예산문제점	- 역량
우한봄 피드백	- '언지차별' '그일은전하소하지않습니다' 쓰는 것보다는 새로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 (사소하지만 명백한, 누구나 차별/혐오/폭력이라고 용납할 수 있는) 사례를 10 문장 정도 제시하면 좋겠다 → 자기 경험을 고집어낼 수 있는 촉매가 필요하다 / 더평범처럼 물량을 뽑아서 학내에 붙여놓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더평범이 가시화가 잘 되었고 좋았다는 피드백) - 구글독스를 최소한 간소화해서 부담 없이 제보할 수 있게끔 하자 - 9월에 개강할 때 강의실에서 발언하고 종이 뿌리는 식의 홍보하자 - '불편함'을 드러낼 수 있게끔. '불편하다면 말해주세요!', 즉 '강의의 성폭력'처럼 - 제보자들을 위해 혹은 주제와 연계하여 포럼이나 강연을 열면 어떨까? 이런 사소한 폭력/차별/혐오와 불편함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해주는.

우한봄 참조 모델

그 일은 전하 소하지 않습니다(여성의 전화 연중캠페인)
<http://antiviolence.kr/new/>

사례 모음

1. 원피스 타임 끝은 허의를 입고 송도에 조고일을 하러 갔다가, 담당교수님께서 "그런 차림

으로는 강의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심. 그러면서 "그렇게 입고 다니면 너가 강간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거야"라고 하셨음.

이전에는 자각이 없었지만 조교는 교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포말한 옷차림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듣고보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내가 주의하지 못한 것은 내 잘못이 있다고 사과함.

하지만 "내가 이렇게 입었다고 강간을 당했다면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사회가 잘못된 거다 불라블라"했더니 교수님이 "네가 강간당하고 나서 싸우는 게 무슨 의미나. 너가 이미 상처받았는데"라고 하면서 남자의 동물적 본성의 통제불가능성에 대해 설명. "너가 조심하지 않으면 가네... 불라블라"

내가 사회학 트레이닝을 받아서 세상물정("그렇게 입고 다니면 강간당한다")을 잘 모르는 거라고 하심.

2. 1박 2일 일정의 학술대회에서 1박 하던 날 밤. 테라스에서 남자 동료랑 얘기 나누고 있는데, 모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초면인 타대학 사회학과 교수님) "들어 사귀냐"고 물어보심. 남자 동료의 외모를 칭찬하더니(잘 생겨서 기분나쁘다. 원래 사회학은 잘 생긴 애들이 하는 학문이 아닌데 등등) "000 원래는 안 예쁜데 발표할 때는 예뻐보이더라"(계속 얘기하심)라고 하면서 그 남자 동료한테 "이효리랑 결혼하는 것보다 000하고 결혼하는 게 사회학에 기여하는 거"라면서 "애가 나보다 못생겼어도 너보다 사회학 잘 할 거라고" 그 남자 동료한테 나하고 결혼해서(결혼해줘서)...애 낳는게 사회학에 기여하는 거라고...이런 이야기 30분 넘게 하심.

(두 명한테 이 얘길 했는데, 둘 다 내가 자랑하는 걸로 받아들일걸래 더이상 말 못 함)

3. 교수님이 다른 남자 동료들은 이름 부르는 데, 나만 "000 어린이"라고 함. 시작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수업시간에도...늘 호칭이 "000 어린이"임. 같이 수업듣는 동료나, 그 교수님을 잘 아는 사람한테도 상임조로 이야기하니까 "애칭"이라고, 예뻐받는거라고, 내가 자랑한다고 받아들임.

4. 박사 선배가 "넌 내가 하는 말에 아무 말대꾸도 하지 말고 수백에 나오는 고양이처럼 못 기만 해"라면서 수백 고양이 포즈(는 깜빡깜빡) 시전함. 한 단어를 다 말하기도 전에 "내가 뭐랬어. 수백 고양이했지"(무한루프) 라고 해서, 그 날 단어 두 개 이상을 이어서 말 못 함.

5. 뭘 잘 흘려서 앞설에 뭔가 자국이 묻어 있을 때가 많나봄(그렇게 티 안남). 한 남자 동료 가 예뻐 "그거 (앞에 뭐 묻히는 거) 너 가슴 보라고 묻히는 거지" "일부러 묻히는 거 같아" "하긴 너는 자신 좀 가져도 되지" 등등의 말을 만날 때마다 거의 한 번도 안 빼고 말함. 그 런날 말했더니 "칭찬한거다"라고 함. 한번은 "임산부"같다고 해서 뭐라 했더니 "페미니스트인데 어떻게 임산부를 욕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라면서 나한테 넌 페미니스트 자격과 의식이 없다고 멘스를레인 함

6. 한 남자 선배가 연구실에서 제대로 공부하는 여자가 없는 것 같다고 함.

7. 남자들이 대화하면 디스커션, 여자들이 대화하면 뒷담화, 수다.
(동료들하고 얘길 되게 많이 나누는 편인데 -물론 '공부' 외적인 얘길 나눌 때도 많지만, 서로 연구 피드백 해주거나, 텍스트에 대해 토론할 때가 더 많음- 얘기 나누고 들어오면 '공부 안 하나'면서 자 같은 거 들고와서 '혼나야한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사감노릇하는 선배도 있고, '넌 공부 안 하나?'고 핀잔주는 남자 동료도 있음. 하지만 나만큼 밖에서 얘기 많이 나누는 남자 연구자들한테는 사람들이 그런식으로 반응 안 함. + 뒷담화같은 거 거의 안 하는데 (자기 얘기 하느라 남 얘기 관심없음) 우리의 대화=뒷담화=공동체를 망치는 일=오락...이라고 매칭함)

8. 남자 동료 가 "아...진짜 때리고 싶다" "남자였어야 했는데" (남자였으면 때릴 수 있으니까) 라는 얘길 한 주에 한 번은 함. (내가 '대들때마다'). 남자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함. 이 분은

프로젝트기운동선수였고 지금도 계속 운동...무서움...

9. 너는 못 생겼는데, 행복해보여서 짜증난다고, (못생겼으면 자신감 없고 불행해야 하는데) 선배가 말함

10. 코모임으로 서울역 노숙인 현장연구 나가는데, (8명 중 여자는 저 혼자) 남자들이 너는 위험하니까 현장연구 나가지 말라고 함. 그런데 그 남자들이 계속 인터뷰 못 따오길래, 혼자 나가서 인터뷰 해 음. 그 후부터는 내가 라포 형성한 사람들을 인포먼트로 현장연구가 진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간 남자들이 "넌 내가 지켜줄게!"라고 함 (내가 널 지킬듯) 여전히 현장은 위험하니까 혼자가지 말고, 인터뷰나 정리하라고 함

11. 선배랑 밥먹고 내가 돈 냄. 그랬더니 나중에 그 선배가 그 일을 꺼내며 "너가 뭐 그렇게 대단한 페미니스트냐고 생색이나"며 훈계함. (하두 뭐해서...반성하는 착함...)

12. 한창 자취방 구하고 있을 때, 경문쪽 집은 방갈이 무서워서 별로인 것 같다고 했더니, 지나가는 여자 훑듯 보면서 "저 여자보다는 내가 안전할 것 같은데"라고 친구인 남자가 말 함.

13.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한 할아버지가 구걸을 하시는 데, 계가 거절하자 뭐라뭐라 하시면서 "꺾통달리게 유세냐"라고 하심. "네, 유세예요"라고 말하며 노력했더니 뭐라뭐라 구시렁거리 시다가 다른 데로 가심. 옆에 있던 남자친구(대학 친구)가 어르신한테 내가 예의없이 굴었다고 화냄.

14. 친구가 시험기간에 택시를 몇 번 타고 학교에 왔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 친구는 당시 반수 준비하러, 그러면서도 학점 관리하러 바빠서 잠을 많이 못 잤) 그 친구의 남친(둘은 외고 연 연대 CC)이 이에 대해 "도 택시타어? 너 존나 사치하는 년이다. 난 너같이 사치하는 년들이 제일 싫다"라고...문자+만나서 욕.

15. 교수님이 권원한테 보드카 한 잔 따라주고, 파도타기 시킴. 한 남성 연구자가 한 모금 마시고 쉼 없이 거리니 내가 많이도 안 줬는데 유난이라며 한숨쉬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조롱함.

16. 너는 다른 여자애들이랑 다르다는 말을 되게 많이 듣는데... (계산적이지 않다, 속물이 아니다, 순수하다, 엄격가 아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것도 차별인가? 저는 여자=계산적...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는데...음.

1. 내가 지하철에서 졸고 있었더니 열자리에 있던 할아버지가 "예쁜 아가씨가 이런 데서 졸면 쓰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왜 졸게? 타이르듯? 함ㅋㅋㅋㅋ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멘스를 레인ㅋㅋ

2. 옷가게에서 옷샀더니 남자 직원이 다른 손님한테는 "안녕히가세요~" 이러면서 나한테는 얘기 다루듯이 "갈가요~" 했을 때.

3. 4학년인데 교환학생간다니까 고등학교때 선생님이 "너 곧 졸업하고 취직하고 시집가야지 어딜 가냐" 라고 함.

4. 지하철에서 남자친구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남자새끼가 다리꼬고

없는다고 뭐라 함.

5. 또 이 남자친구 얘기. 냉면집에서 양념 빼달랬더니 "남자가 매운 것도 못먹어?" 맛에도 남성성 여성성...

6. 새내기때. 술먹다 신나서 밤새운다니까 웬 남자선배가 나더러 "당돌하냐?"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아오 소름

7. 여기에 쓰기에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지만, 세미나 오티 때 한 성소수자 분이 나더러 "이런 얘기 하면 이질감 들지 않아요?" 하고 걱정해준 것. 당신의 그 말이 이질감 들어옴

8. 초딩때. 남자애들이 나더러 "너 고속도로 있다고 해봐" 해서 "고속도로가 있어?" 했더니 남자애들이 개차붓음. 고속도로가 길의 은유였던듯?? 페니스 은유 가지고도 뭐라워라 했었는데 기억이 안난다. 하.

9. 우리 학교 경비 아저씨. 연극 동아리 <날개> 하는 데 연습실 빌리느라 종이 냈더니, 종이 받고 나와서는 "날개라고?" 하면서 내 어깨를 주무름. 개당함. 시발.

10. 존나 어저씨 동아리 선배가 나만 보면 외모평가함. "그렇게 꾸미고 어딜 가?" / "예뻐졌을 줄 알았더니 그대로네?" 각각 다른날. 노답새끼.

11. 비슷한 맥락에서 "예뻐졌다!" 가 인사로 통용된다는 사실이 싫음. 좋아하는 친구들이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애들이 예쁘다니까 좋을 수도 있었는데, 왜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저런 말로 인사로 통용됨? 꺼져

12. 남자친 친구가 스키니를 입고 왔더니 어떤 여자 선배가 엉덩이 평평하다고 함. 역겨움.

13. 그놈의 맛타령 생각나서. "여자들은 좋아하는 요리/커피/술 등" 하여튼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맛에 대한 얘기들. 피나콜라다 싫다고 싫다고!!! 반대로 남자들이 단 거 좋아하는 거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는 거? 굳이 한번 되물음. "오, 단 거 좋아해?"

..뒤로 갈수록 욕을 했네영 해해해
그리고 왜이렇게 많지..

학내로 여겨지는 일들에 국한되었고, 여러명의 사례 제공을 받았습니다. 사례 계보자에게 활용 동의를 얻었어요. 근데 정말 감수성없는 고학번 남성은 캠퍼스의 적인가보다. 내 경험이란 일치하는 것도 있어 강렬함.

1. 수업 중, 술이 등장하는 텍스트를 다루다가 뜬금없이 '술 한 잔 들어가면 눈이 물리고, 두 잔 들어가면 입이 물리고, 석 잔 들어가면 와이셔츠가 물리죠.'라고 말함하시는 교수님. 네??

2. 과제물을 내는데, 갑자기 못어보라고 하시던 교수님. 나는 당황해서 네??^^;;하고 그 교수님은 봐봐. 못으니 얼마나 이빠.라고 하셨죠.

3. 가을 겨울에 레깅스, 편해서 여학생들은 스타킹 대신 많이들 입죠. 한 교수님. 수업하시다 전혀 노역라 뜬금없이 "난 요새 여자들 미친 것 같애. 왜 내복을 밖에도 입고 나가?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선생님 선생님 수업에도 여학생 삼분의 일은 레깅스 입었습니다. 레깅스의 멋짐을 모르는 당신이 불쌍해요.

4. 과방에서 운동 얘기하며 여럿이 수다 떨고 있을 때, 농구 선수나 육상 선수 중 흑인의 활동이 두드러진다는 이야기로 화제가 넘어가던 중, 어떤 여학생이 "맞아요, 정말 육상 선수를 보면 멋있어요. 달릴 때 근육도 말처럼 막 두드러지고 그러잖아요."라고 했다가 남자 선배들이 "ㅋㅋㅋ말...!!" "ㅋㅋㅋㅋ말근육" "흐흐..." "우리 OO는 말근육이 좋아요?"에 한 오분간 시달려야했던. 보는 내내 불쾌했어요.

5. 과방에서 남자애들이 소녀시대는 언제나 이쁘다고 엄청엄청 외모평가질. 나도 그 화제에 끼고 싶어 누구랑 누가 정말 이쁘다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우리 OO 컴투게더 가야겠다?" "왜 여자 이쁘다고 난리?" 이러더라고요, 아니 씨X, 너가 여자 이쁘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여자친 내가 여자 이쁘다고 하는 건 컴투게더나?

다음 중 가장 잘못된 사람은?

1. 컴투게더 운운하여 농담하는 선배
2. 과방에서 같이 아이들 외모 평가를 한 여학생

가장 노노해리

3.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갑자기 소비당한 컴퓨터의 일원

6. 게이싱, 레츠샷, 사귀어라, 결혼해라, 입양해라. 이런 거 대체 왜 그래요?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이런 방식으로 웃음거리가 되어야하는 건 아니잖아요?

7. 새내기 때가 생각납니다. 남자선배들이 남녀 후배들 밥사주는 자리였는데, 학점이나 CC니 대학 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새내기적 기대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어떤 선배가 "남자는 상관 없는데 그래도 여자는 CC 여러번 하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좀 약한 사례인듯.)

8. 기 업티 갔는데 어쩌다보니 여자애들은 피곤하거나, 술에 취해서 뽀뽀. 어쩌다보니 안 잠 든 애들이 다 남자애들인 상황. 나는 술먹고 일찍 잠들었다 새벽에 술 깨며 다시 잤는데, 여자애들 뽀뽀 자고 있는데 남자애들은 심야 채널 경제불명의 야한 영화보며 조용조용히 "오오 한다한다" "침이 좋구면 허허" "날는다날는다!" 하고 있었다. 여자애들이 다 자고있었던 상황이라고 해도, 업티의 특성 상 언제 누가 어떻게 열지 모르는데 굳이 저런 것들 보여 담소(?)를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 당혹스럽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하고, 근데 저 친구들과 어색해 질까봐 그냥 계속 자는 척을 했다. 왜 배려와 눈치는 너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인가.

9. 성소수자 운동도 지지하고, 관련 단체에 cms 후원도 하고, 퀴어문화축제에서 엄청 물건 사계끼는 이성애자 1인임. 학내에서 만난 퀴어분들이 좀 친해지면 퀴어 pride를 드러내기 시작. 나는 퀴어 프라이드 드러내는 거 되게 필요하고 좋다고 생각한다. 이성애라는 정체성은 모두에게나 당연히 여겨지는 반면, 성소수자라는 정체성이 되게 문제적으로 위치하거나 조롱당하거나 언제나 아웃팅이나 폭력의 위험에 직면해야하거나, 그러니 퀴어문화축제나 인권단체 활동 등 정체성 드러낼 수 있는 공간에서라도 열심히 드러내는 건 필요하지. 근데 이런 농담들은 진짜 불쾌해 죽겠음. 가령 "이성애에 무슨 맛있는 게 있어?"러던지 "이성애자따위야 어찌 프라이드를 알겠어?" "섹슈얼리티의 오묘함을 모르는 이성애자들은 멍청해." 이런 것들. 나는 너한테 그러지 않잖아. 근데 왜 너는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해? 네 배타적이기 짝이 없는 소수자 부심 이제 좀 신물난다.

10. 강의실 건물 앞에서 담배 피는 걸 눈여겨보면 어떤 선배. 과 술자리에서 담배를 피면 임신이 어떻고 출산이 어떻고 잔소리 잔소리. 정말 답답지 않았어요. 여자면 당연히 임신하고, 출산하리라고 생각하는 그 거친 가정도 싫었고요.

1. 고딩 때 대학생들 MT에 킨 적이 있다. 로타렉트(대딩)-인터랙트(고딩) 함께 간 업티였는데 뒷풀이에서 치맥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거기서 나한테, 어떤 여학우 분을 가리키며 '애도 입학할 때는 몬스터였는데 교정하고 렌즈 끼니까 예뻐졌다'고 이야기함. 그래서 '제가 지금 몬스터라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다들 빵 터짐.

2. 20살 때 헬스를 처음 가봤다. 당시 내 몸무게는 60키로 초반대. 내 키가 168cm인 걸 감안하면 그리 비만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헬스 트레이너가 헬스에 왜 왔냐고 해서 체력이 안 좋아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 살 빼려고 온 거 아니냐 살 빼야할 것 같다고 계속 이야기함. '너 정도 키면 52~53kg 정도면 딱 예쁘고 적어도 58kg 정도는 되어 보아야 사람답다'는 말을 했음.

3. 중학교 때 길을 알려준 외국인 아 자꾸 같이 있어달라고 하길래 난 너무 졸리고 우리 둘

다 집에 가야한다고 얘기했더니 (영어가 서툴러서 잘 못 알아 들은건지 지 좋을대로 해석한 건지 아직도 모르겠다. I am so sleepy and tired, it is so late, so it is important to go home and sleep 며 이따식으로 말했던 듯) 난 섹스를 하려면 너무 어려다면서 가슴을 주무름. -.- ** 감쪽 놀라서 바로 택시 잡고 도망가면서 기사님에게 저 방금 성폭력 당할 뻔했다 너무 무서웠다 했더니 '아가씨도 마음이 있으니까 이 시간까지 함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해서 어이가 없었음. **2 그리고 집에 가서 아빠크한데 늦게 왔다고 혼났는데 왜 늦었냐고 하시기에 길 잃은 외국인이란 있었다고 했다가 미쳤냐고 머리를 매우 세게 맞음. **3

4. 대학교 입학 전 새내기 오프 뒷풀이에서 내가 나가서 밖에서 담배 피우니까 고학년 선배 두명이 '와 철학과에서 담배 피우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존나 멋있다' 이런 말을 '씨발'을 거의 백 번 쉬어서 말한 거. 지금 생각하면 개박치는데 그땐 무서웠다.

5. 새내기 때 기독교 수업 조모임 때 '기독교와 여성'이 주제가 되었는데 유일하게 1학년이 아니었던 군대 갔다는 사람이 사람들 의견도 제대로 안 듣고 멋대로 진행해서 개짜증났음. 수업 보고서도 지 이름만 써서 ^^ < 이런 거 넣어서 내서 개 식겁. 멍청하고 평났는데 나 중에는 애들한테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선배질해서 그것조차 개짜증났음.

6. 2학년 때 수업에서 '이제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휴머니즘'이라며 페미니즘 공격하던 진보 좌파 군필 남자들..

(점점 발언이 아니라 박진 기억 모음집이 되어가고 있는데)

7. 지하철에서 환승 통로에서 사람이 많아서 길이 매우 꽉 막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를 특정해서 계속 길 막히는 것을 비난함. 듣다가 박쳐서 왜 나한테만 머라하나 소리지름.

8. 경찰관의 멘스플레인 - '근데 남학생한테 투표권 왜 안줘요?' '이거 하면 뭐가 좋아요?' 장학금 줘요? '둘이 친구예요?' none of your business!

9. 살 안 뺀다고 게으르다고 사회 나가면 망할 거라고 시도 때도 없이 비난하는 아빠.

10. 덩치 크고 힘세보이는 나는 이대에서 신촌까지 택시 연날 타도 한번도 비난하는 소리 들은 적 없는데 (가끔 머라 한 마디하면 반드시 세게 받아친 다음 나머지 말은 씩음. 그리고 도착지 요구할 때 절대 미안해하지 않고 매우 당당함.)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구의 여성 친구는 신촌에서 합정갈 때 택시타다고 요금의 두배를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음 -.-

1. 우리과 교수 대학원생 면접 보는 데 어떤 어떤 여자 선배에게 교수가 '자넌 연구를 하는 것보다 천문우주학 홍보대사가 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어보았고, 그 선배는 면접에서 떨어졌다.

2. 방금 그 교수 교수 임용 면접을 보는데 결혼하지 않은 40대 초반의 포닥 여성에게 '결혼은 언제 할 거예요?'라고 물어보았다. 그 교수는 채용돼서 우리 과에서 연구 중... 채용되고 3년뒤 결혼함...

3. 생리결석계 우주의 이해 창강하다가 조교에게 질문이 생겨서 갔더니 생리결석계를 누구냐 다 볼 수 있도록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이런 애들은 당해봐야한다'고 답했다. 내가 계속 문제제기 하니(그 와중에 다른 사람이 또 생결을 제출

했고 그걸 또 위에 버섯이 올려놓았다...) 결국엔 "이렇게 해주면 됐지?"라고 하면서 생리컵
석계를 달아놓았다.

4 성희롱

때는 2013년도... 중도 뒤편에서 친구랑 얘기하는데 누가 엉덩이를 짹 움켜쥐고 지나갔다.
근데 그 사람은 내 동기 삼수한 형... 너무 어이가 없는 와중에 무슨 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서 "뭐하는 것이야?"라고 했더니 "성희롱했다."라고 말하고 그냥 가버림

5 과방에 갔더니 4번에 영만뒀한 사람이 "말이 발경나면 (팔뚝을 잡으며)이만한 거 달고 뭐
어디닌다."고 말한 거....

6 백양로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모르는 여자에게 "우와 가슴 진짜 크다!"라고 하면서 지나
갔다는 얘기도 있고...

7 고등학교 동창이 동창 카톡방에 아동 율리는 건 흔한 일...

8 길에서 아는 남자애들이 우르르 지나가는데 그중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탈복숭아 먹
어봤어?"라고 물어봄.....

9 친척 중 누군가가 "OO야 꼬추 좀 보자.", "OO 꼬추 내가 먹어부렀다!"라고 명절에 볼 때
마다 말함... 나의 기억이 시작할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 소릴 듣고 자람

10 9번의 집에 갔을 때 내가 설거지하려고 하니 9번의 아내가 "남자가 설거지 하면 꼬추
떨어진다!!"라고 말함.

11 아버지가 나에게 가르쳐준 여자 사귀는 방법. "어디 델고가서 자부러~"

12 나는 머리가 긴 남성. 내 머리에 격응을 하지 못한 친구가 이틀만에 갑자기 "OO야 머리
이쁘다. 진짜 이쁘." 하면서 내 손을 어루만짐.

시발.

(6번 빼고는 전부 직접 겪은 일들이군요...)

[첨부자료 4] 2015년도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 세미나 설문지 (참가자용)

본 설문지는 26대 총학생회 <다시 봄>의 사업을 평가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됩니다.
다.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세상을 다시 보는 페미니즘>(이하 세다페) 세미나의 전반적인 진행과 결과에 만족하십
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
다

이유 : _____

2. 세다페 세미나의 읽을거리, 발제문의 질과 양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
다

이유 : _____

3. 읽을거리와 발제문을 바탕으로 한 토론의 내용에는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이유 : _____

4. 토론 중 의견이 갈릴 때, 한 쪽을 배제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미나가 진행되었
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이유 : _____

5. 내규는 잘 지켜졌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6. 날짜와 시간, 장소는 적합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이유 : _____

7. 특별히 좋았던 점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8. 특별히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9. 총여학생회 <다시 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제26대 총여학생회 새롭게 피어나는 상상, <다시 봄>

[첨부자료 5] 풍문으로 더럽소 홍보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원/계계 라고 합니다.

<언니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여성 성소수자 캠프 기획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운영하시는 페이지에서 포스터 홍보 후원을 해주실 수 있을지 여쭙보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언니네트워크에서는 2015년 8월, 성소수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2박 3일 페미니즘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7회에 걸쳐 캠프를 진행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성소수자 여성을 대상으로 개최합니다.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포스터 사진 첨부+

여성 성소수자를 위한
2015 언니네트워크 페미니즘 캠프

물문으로 더럽소(The Love Show)

날짜 : 2015.8.21(금)-8.23(일) 2박3일

장소 : 강화도 오마이스쿨 시민기자학교

대상 :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여성 성소수자 누구나

페미니즘으로 쿨하게 만나는 즐거운 캠프!

차이를 존중하는 공감 캠프!!

문화로 연결되는 네트워킹 캠프!!!

• 캠프 신청하기! <http://goo.gl/forms/50a19atfes>

• 캠프에 대해 더 알아보기! <http://unninetwork.net/camp2015>

가능하시다면 포스터와 함께 위 내용을 게시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생 분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체계/언니네트워크 드림 -

[첨부자료 6] 여성가족부의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 성명서 연대 요청
발신

SOG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www.sogilaw.org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https://www.facebook.com/lgbtactkr>

수신 각 대학 총학생회 및 여성주의 대학단위

안녕하세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에서 대학 여성주의 단위에 긴급히 성명서 연명 및 기자회견
참석 요청을 드립니다.

성명서 연명 여부와 기자회견 참석 여부는 8월12일(수)오후6시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전 여성발전기본법)을 모법으로 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기본조례(또는 양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제정된
<과천시성평등조례>에서, 성평등조례로는 최초로 성소수자 지원 조항을 포함하였고, 그에 이어
두 번째로 보다 적극적인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포함한 <대전광역시성평등기본조례>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참고] 무지개행동 환영 논평

<https://www.facebook.com/lgbtactkr/posts/731695990293593>

와이세

비영리

정부를 준다.
페미니즘 홍보

언니네트워크
1과도 12동의집
세로 우선을 꼭대들:)

쿠어...

성소수자 = 성 정책

그러나 제정과정에서 보수교계의 반발로 시행과 동시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 조항을 삭제하라는 개정 요구가 있었고, 최근 여성가족부에서 대전광역시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해당 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시정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여성단체 및 정당 여성위원회 등과 함께 성명을 발표하고 2015년 8월 13일 (목)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여성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련기사 대전시기독교연합회, '동성애 옹호' 市 성평등조례 폐지 청원

여성가족부 '대전시 성평등조례 입법취지 벗어났다' 개선 요청

작년 서울시장에서의 무지개농성 이어, 무지개행동 및 성소수자운동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등 국가 및 지방행정에서의 성소수자 배제를 문제삼고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평등 관점에서 성적지향성별경계성에 따른 차별 및 성소수자 인권 문제를 다루고자 당론 및 운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래, 성명서 전문을 첨부합니다.

이번 여성가족부 사안에 대해 함께 목소리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적으로 성평등과 성소수자인권을 함께 고민하는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성평등 정책의 정신을 왜곡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한 여성가족부는 주무부처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훼손하였다. 여성가족부의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 개정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여성가족부는 8월 4일 대전광역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광역시가 성평등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성평등정책의 주요 사항에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다. 성소수자(성소수자)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무성애자 등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과 관련된 소수자를 말한다) 보호 및 지원, 라.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마. 그 밖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하자 여성가족부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전광역시의 성평등기본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는 입장을 밝히고 개정을 요청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성평등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반성소수자 단체와 보수 개신교 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 7월 23일 브리핑을 통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취지는 성 소수자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성소수자 용어가 논란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에 대한 보호 미치 지원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여성정책이 추구하고 목표로 삼아야 할 성차별 해소와 성평등 추진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왜곡했다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여성가족부가 주장하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는 여성정책이 그동안 변화, 발전해왔던 역사와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1995년도에 만들어진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남녀 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 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하면서 여성정책의 출발을 알렸다면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것으로 변화 하였다. 여성정책의 방향이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차별을 해소하여 평등을 추구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으로 목표를 변화시킨 것이다.

이에 비추어볼 때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정책의 목표와 방향은 모든 국민이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성불평등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적지향이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별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사회적 배제와 폭력을 경험하는 성소수자는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여성가족부의 주장이 어떻게 정당할 수 있는가. 성에 기반한 차별이 성소수자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가? 성에 기반한 차별해소와 평등을 추진하는 정책에서 성소수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하였다는 것인가?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잘못된 입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정과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014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될 당시에 이미 서울시를 비롯한 66개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평등 조례를 제정해서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정책의 방향이 이미 성평등으로 오랜시간 자리잡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개정되면 성소수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서 안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이 국회의원회에서 벌어졌고, 정부가 양성평등기본법 명칭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그러한 논란에 편승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항이 정당하고, 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조례의 정신에 따라서 성소수자 또한 성에 기반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다른 이들과 동등한 주인으로서 이 법과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모법의 취지를 거스르거나,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다고 할 수 있는가. 이는 법과 조례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누군가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등의 상위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여성가족부의 주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정책의 대상에서 유독 성소수자만을 배제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 성차별은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의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서 일어난다. 이것을 부정하고, 여성정책 혹은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현부모여성, 이주여성, 장애 여성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성차별을 외면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상에서 성소수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법과 조례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를 정책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번 사건에서 여성가족부에 인원을 제기하고, 대전광역시에 반대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동성애반대대책위원회를 비롯한 반성소수자 단체와 보수 개신교계이다. 이들은 단지 성평등 정책에서만 성소수자를 배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반성소수자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자신의 업무에는 성소수자 관련된 것이 없다고 답변하고 민원으로부터 오면하라는 것은 공적인 책임을 망각하고 저버리는 것이다.

성소수자는 성차별을 겪고 있다. 성소수자가 경험하는 성차별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기존의 여성 정책에 성소수자 여성의 경험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성소수자가 모든 국민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주무부처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여성가족부가 대전광역시 성평등조례를 개정하라고 요구한 것은 성차별적 행위이며 성소수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하려는 지시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다. 당장 개정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5. 8.

단체 연명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SOGILAW Associate Researcher